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불에 타지 않는 사람들

24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25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귀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27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데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웃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28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들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29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 내고 그의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 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30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사람들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네 사람이 보였고 그중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1.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24절)
하지만 보이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중 네 번째 사람은 무엇과 같았나요? (25절)
2. 자신의 손에서 구해 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냐던 느부갓네살의 말(3:15)은 어떻게 바뀌나요? (28-29절)

• 닳아가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말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놀라웠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의 경험을 그룹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1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2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려려고 한다. 3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4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5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싸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6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7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러 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8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9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 있는 비밀이라도 네가 풀지 못할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 10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11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잘 보였다. 12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13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14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 버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15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 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하게 하여라. 16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때를 지낼 것이다. 17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려는 것이다.' 18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꾸 꿈이다. 벨드사살아, 내게 그 뜻을 말해 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묵상하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모든 백성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최고의 환경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도(4절)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만나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 안에 영혼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 감격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 주위에 전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한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을 하나님께로 이끈 다니엘처럼 나도 누군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4 적용하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완고한 사람,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에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다니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할까요?
- ②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다니엘처럼, 아직은 복음에 대해 완고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때 주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당황한 다니엘

19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다니엘의 해몽과 조언

20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21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22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23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 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함께하며 일곱 때를 지내게 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24 왕이여, 그것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25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때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26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 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27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경고와 깨달음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감히 왕 앞에서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신임을 잃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오해로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도 상황도 현실도 아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귀를 늘 민감하게 열어드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전할 말을 눈치만 살피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이제 말할 용기와 지혜를 먼저 구하고 담대히 입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오늘, 불편하고 곤란한 내용이어도 상대를 위해서 바로 전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전할 지혜와 담대함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② 내게도 기꺼이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 사람의 사랑어린 조언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언이 실현됨

28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29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30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31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네게서 떠났다. 32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일곱 때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3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뤄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 느부갓네살의 회복과 찬양

34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35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36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곡히 호소했지만, 그 말을 들은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잊고 자신의 화려한 왕국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수치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정해진 고난의 시간을 다 겪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34절). 내게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곧바로 돌이키는 영적 민감함이, 또 나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1년이 넘게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 역시 방금 묵상한 말씀마저 QT책을 덮는 즉시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을 경허히 받고 들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나의 삶과 영혼 전체를 결정짓는 '명령'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묵상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루의 삶 전체가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 ② 지금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아픈 시간은 아닌가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킬 때 회복이 있음을 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매 맞고 돌이키기보다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곧바로 반응하여 즉시 돌이키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3장 (어둔 죄악 길에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벽에 쓰인 글씨를 보고 두려워함

1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2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4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5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축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6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7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 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8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 주지도 못했습니다. 9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 다니엘을 추천함

10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 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12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 줄 것입니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귀한 것들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가 심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그것들로 자기를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고(2-3절), 더 나아가 그것을 들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4절). 그러나 세상 두려울 것 없던 그의 실체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반면 잊혀진 존재였던 다니엘은 다시 한번 모든 지혜자들 위에 높이 세워질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과 아닌 삶의 차이입니다. 허세로 가득 찬 인생은 당장은 멋져 보일지 몰라도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4 적용하기

벨사살 왕과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며 자기가 주인 된 인생과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의 차이를 봅시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게 허락하신 재능, 관계, 성격, 환경 등으로 은근슬쩍 하나님이 아닌 나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요즘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까요?
- ② 왕의 어머니는 다니엘을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을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 과시하는 교만을 멈추고 주 앞에 온전히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벨사살 왕의 제안

13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러 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 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14 네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15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16 나는 네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 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다."

· 다니엘의 조언

17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8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20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21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23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3 묵상하기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배울 좋은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왕위에서 쫓겨났고(20절), 마침내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왕위를 회복한 뒤에는 자신의 간증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들로서 그 일을 똑똑히 알았을 테지만 이전 왕의 삶에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러 온 다니엘을 교만하고 불손한 태도로 맞이합니다(13절). 결국 돈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는 다니엘에게 돌직구와 같은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전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벨사살 왕의 교만이 나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언제나 내려놓음이고 겸손이며 순종이어야 합니다.

*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도스이지만, 당시 관습 상 이전 왕인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실패와 승리의 사건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실 때마다 뼈아프지만 즉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벨사살 왕의 태도가 요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솔직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겸손이 아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 ② 설교나 QT, 주위 사람의 권면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지적받을 때, 그것을 받아 들이는 나의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은 없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겸손히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벨사살의 죽음과 다리오의 즉위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25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26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 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27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28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29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30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31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 총리로 세워진 다니엘

1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2 또 그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